“대출 갚으려 ‘마지막 돈줄’서 또 대출, 폐업도 못해”

지역 중기·소상공인, 매출 떨어지는데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 압박
심각한 자금난에 노란우산공제 등 공제기금 대출 급증…시름 가득

코로나19로 인한 장기불황에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이른바 ‘3고’ 사태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이라 불리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대출이 급증했고,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매출은 떨어지고 고정비 지출은 계속돼 사업이나 장사를 해도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지만, 대출금 상환 등에 발이 묶여 폐업도 하지 못한 채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을 구하기 위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계약 대출 건수는 1만57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2104건)보다 29.92%(3622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액은 1402억원에서 1935억원으로 38.02%(533억원)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공제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달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금을 넣다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유로 해지할 때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제계약 대출은 쌓아둔 납부금 내에서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보통 금융권 대출과 달리 소기업·소상공인 본인이 폐업이나 퇴직을 대비해 적립하는 ‘저축성 목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급한 경우가 아니면 잘 이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마지막 돈줄’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받는 이유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작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월세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지출은 여전해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은 줄고 고정비 지출은 해야 하는 탓에 ‘마지막 돈줄’까지 끌어다 써가며 매달 버티고 있다는 얘기다.

강만성 중기중앙회 광주지역본부 공제사업 기금 담당 과장은 “경영악화가 심해져 갑자기 힘들어진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받곤 한다”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상환 등에 발목이 붙잡혀 폐업을 하지 못한 이들이 하루하루 버텨보기 위해 공제 대출을 받는 사례도 있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현상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대출의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도 증가 추세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대출액은 389억3200만원으로, 전년(292억1300만원) 대비 33.26%(97억1900만원)이 늘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으로 기금을 조성, 경영난 및 자금필요 시 공제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제도다. 담보와 신용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힘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제에 가입해 신용대출로 활용할 수 있다.

납입한 공제부금의 1배에서 최대 3배(단기운영자금대출), 7배(어음수표대출·부도매출채권대출)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단기운영자금대출 금리는 연 3.64~9.85%다. 대출금리가 낮은 편이 아님에도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제 대출을 받는 것은 결국 심각한 자금난과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최근 공제 대출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 여신 자료를 보면 지역 중소기업의 예금은행 신규 대출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조1085억원으로 전년(1조7669억원) 대비 19.33%(3416억원) 증가했고, 제2금융권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누적 신규 대출은 3조2157억원으로, 전년(2조5389억)보다 26.66%(6768억원)이나 늘었다.

이처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부채 역시 급증한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은 계속되면서 빚으로 버텨오고 있는 이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기준금리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대출금리로 고금리 리스크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차보전과 저금리 대환 대출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금융권의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 자제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제7대부터 13대까지 역대 은행장들이 창립 54주년 간담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한, 송기진, 정태석, 김장학, 강락원, 송종욱, 엄종대 은행장. 〈광주은행 제공〉

“지역민 동행, 광주은행 100년을 향해”

창립 54주년 기념 역대 은행장 간담회…강락원 7대 행장 등 참석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6일 서울 63스퀘어에서 창립 54주년을 맞아 역대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강락원(제7대), 엄종대(제8대), 정태석(제9대), 송기진(제10대), 김장학(제11대), 김한(제12대) 등 역대 광주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주은행의 지난 54년을 회고하고,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역대 광주은행장들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금리인상,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당기순이익 사상 최대 실적 달성과 지역 대표 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광주은행의 성과에 대해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지역 향토은행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과 금융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금융지원 및 사회공헌활동 등 각 분야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지역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행으로 성장해줄 것을 강조했다.

송종욱 은행장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하고, 지역민과 고객님들께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100년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지난 16일 익산세무서 신청사 개청식에서 윤영석 청장이 관계자들과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이날 윤 청장은 청사 신축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 현장 소통 행보

취임 후 15개 세무서 방문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현장 소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청장은 올해 7월 11일 취임한 이후 지난 9월 6일 북광주세무서 방문을 시작으로 17일 남원세무서까지 관내 15개 모든 세무서를 방문했다.

광주와 전남·북지역 일선 세정현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업무를 처리해줄 것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직원숙소 환경 개선, 인력 부족 등 관서별 건의사항에 대해 지방청 차원의 꾸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주문,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상공회의소 간담회 3회, 산업단지 방문 2회, 기업시찰 12회 등 추가 일정을 진행, 납세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세정을 펼쳤다는 평가다.

윤영석 청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복합위기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세정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유용한 세무정보가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현장소통과 세정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우수한 금호타이어, 중국 시장 선도해 가길”

중국대사 등 중앙연구소 방문

금호타이어는 지난 16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곡금생 중국경제공사, 김현철 무역협회 본부장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를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중수교 30주년 행사의 하나로, 한중 관계 개선 및 네트워크 지속을 위해 중국대사관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와 임직원은 중국대사 및 한국무역협회 일행 등과 함께 용인연구소 홍보관과 실험실을 안내하며 금호타이어 제품의 우수성과 주요 프리미엄 제품의 생산 과정을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중앙영구소는 지난 2013년 9월 경기도 용인시에 개소해 금호타이어의 국내외 흩어져 있는 연구센터들의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 등을 통합 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외 600여명의 전문 연구인력이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 및 타이어의 핵심기술, 기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금호타이어의 전기차용 타이어에 적용된 K-Silent(흡음기술)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게 타이어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라며 “중국 현지에서도 금호타이어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브랜드인지도로 타이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국내는 물론 해외 8개 판매법인과 12개 지사·사무소를 거점으로 18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타이어 기업이다. 현재 한국, 중국, 미국, 베트남에 위치한 8개의 타이어 생산공장을 토대로 글로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중 중국은 남경·천진·장춘공장을 운영중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고속, 나주 혁신도시~부산 서부 노선 신설

오전 8시20분부터 하루 4차례

금호고속은 오는 21일부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와 부산서부(사상)를 오가는 신규 노선을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금호고속은 지난 4월 나주혁신도시-서울(센트럴) 버스 노선(하루 3회 운행)을 개통한 이후, 7개월여 만에 나주혁신도시에서 타지역으로 운행하는 장거리 버스 노선을 추가 개통한 것이다.

이번에 신규 운행하는 나주혁신도시-부산서부(사상)노선은 하루 4회를 운행한다.

출발 시간은 나주혁신도시발 오전 8시20분, 10시20분, 오후 1시50분, 4시20분이다. 부산서부(사상)발은 오전 8시30분, 10시, 오후 2시, 4시로, 소요시간은 3시간 30분이다. 전 횟수를 우등버스로 운행하며 해당 구간 이용 요금은 2만9600원이다. ‘티머니GO’ 또는 ‘고속버스티머니’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이번 신규 노선 개통은 혁신도시와 주요 대도시권을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 혁신도시의 교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금호고속 전화 062-360-8114.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3고 시대’ 벤처기업인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벤처포럼 공동개최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는 지난 16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2022 광주전남벤처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지역 벤처업계를 대표하는 두 협회가 처음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행사다.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노배성 광주지방조달청장, 나기수 이노비즈협회광주전남지회장,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김영탁 기술보증기금호남지역본부장, 윤봉근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두 협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3고’ 위기에 처한 지역 벤처기업인에게 좋은 영감과 긍정의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강에는 국내 대표적인 유니콘기업 ㈜우아한형제들의 이현재 이사가 강사로 나서 ‘배달의민족 서비스와 푸드테크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편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는 이번 포럼 공동 개최를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행사를 마련해 양 협회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 지역 벤처업계의 고충 해결 및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2.90(-34.55)
↓	코스닥	737.54(-5.56)
↓	금리(국고채 3년)	3.804(-0.004)
↑	환율(USD)	1339.10(+14.10)